



05 5대 교구장 성 다블뤼(Daveluy, 안돈이) 주교

(프랑스) 1866년 3월7일~30일

올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 역대 교구장에 대해 아주 작은 퍼즐이라도 함께 찾아보고, 그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직접 찾아보고, 생각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서울대교구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교구장들의 삶이 주는 울림을 전합니다. 우리가 찾은 서울대교구 다섯 번째 교구장님은 성 다블뤼 주교입니다.

다블뤼 주교님의 연혁만 본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구장이 되자마자 순교하신 것인가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주교님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이런 구절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1866년 3월 순교하기까지 21년 동안(신부로서 12년, 주교로서 9년) 조선의 선교사로 활약, 당시 가장 오랫동안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가 되었으며 동시에 조선의 언어와 풍습에도 가장 능통하였다.” 따라서 주교님은 신부로 12년, 주교로서 9년은 조선 교구 부주교로, 오히려 교구장 주교로서 살으셨던 날은 며칠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블뤼 주교님의 가장 큰 업적은 ‘한국 천주교회사와 조선 순교사의 편찬’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찾고 목격 증인을 찾아 증언을 수집하고 이것들을 프랑스어로 옮기고, 그 외의 주요 순교자들의 전기를 파리 본부로 보낸 분도 바로 다블뤼 주교님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서를 만들면서 복음사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엮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찌면 다블뤼 주교님의 방식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150년이 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볼 때에, 그 당시에 그런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힘들게 해놓지 않았다면, 박해도 없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처럼 순교자들에 대해서 뜬구름을 잡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교님에 대한 또 다른 글을 찾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니

다. “서울 의금부에 갇힌 다블뤼 주교는 심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훌륭한 호교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3월 23일 그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 결정되어 충청도 보령(保寧) 수영(水營)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죄수복을 입고 고문으로 상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송되는 도중, 처형 예정 날짜인 3월 30일 성 금요일에서 처형일이 다소 연기될 기미가 있음을 알고 ‘성 금요일에 죽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순간 올해 2018년도 비슷한 시기에 성삼일이 겹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례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2018년 3월 30일도 주님 수난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수난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 다블뤼 주교님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 처형되었고 군문효수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성금요일이 되면, 전심을 다 해 주님의 사제로 살다가 순교한 다블뤼 주교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 나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제때에 정확하게 해야 할 때도 주교님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교님.

이도행 토마스 신부



- 1841년 12월 18일 서품.
- 1845년 10월 조선 입국.
- 1857년 3월 25일 보좌주교로 임명되어 성성식을 가졌고, 1866년 3월 7일 교구장직을 승계하였으나 곧 체포되어 3월 30일 충청도 보령의 갈매못에서 순교함.
- 1968년 복자품에 오르고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됨.

사진 한국교회사연구소 제공



“살아있는 인간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인간 생명을 옹호하는 것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신 임무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전체에 대한 당신의 주권에 참여하도록 당신의 살아있는 형상인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인간은 교회가 따라 걸어야 하는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길입니다.(생명의 복음 2항, 42항)

글 생명위원회